

이라크 인민 대학살을 허용하지 말아!

유사립법 분쇄!

2002년 10월 21일

이라크 침략전쟁은 세계전쟁의 시작

미군이 잇따라 중동으로 몰려가, 열화우라늄탄과 클러스터폭탄 등 잔학한 무기로 이라크 인민에게 유례없는 참화를 가져오려 하고 있다. 미제는 “체제 변경”을 공언했고 심한 공폭과 대규모 지상전으로 이라크 전역과 바그다드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 미제는 공언하게 “핵 선제 공격”까지 군사전략의 주축으로 하고 있다. 반드시 대학살을 저지해야 한다.

91년 페르시아만 전쟁 때 20만여명이 학살당했고 열화우라늄탄으로 이라크 인민이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이후 11년 넘도록 제국주의의 경제 제재와 끊임없는 폭격으로 160만여명이 죽음을 당했다. 그 절반이 아이들이다. 그리고 지금 이를 훨씬 넘을 참화를 미제가 강요하려 하고 있다. 9월 20일 부시가 교서를 내놓고 미국의 전략이 “미국의 가치관과 이해의 통일을 반영한, 특히 미국적인 국제주의”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가치관과 이해만이 전세계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위권 행사 (미제 이해의 관철)를 위해서는 단독적으로 군사력 행사를 서슴지 않다”고 한다. 이런 미제의 전쟁 돌입 기도가 동시적으로 제국주의간 쟁투전을 격렬하게 추진하며 석유와 “지정학(地政學)적” 위치를 독점하기 위해 북조선-중국 침략전쟁과 세계전쟁으로 가는 길이다.

부정의를 감추지 않는 이라크 침략전쟁이 바로 미제의 단말마의 몸부림이고 붕괴의 시작이다. 이제 대공황 정세가 시작되었고 제국주의-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9.11”이 미제의 포학에 중동 인민, 모슬렘 인민의 분노를 들이대었다. 파산된 제국주의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공세를 가속시키는 동시에 제국주의간 쟁투전을 격화시키면서 세계전쟁을 폭발시킬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인민의 살 길이 세계혁명 밖에 없다.

조선인민과 연대해서 미·일 제국주의의 북조선 침략전쟁을 내란으로 바꾸자

일제가 대테러특별조치법 개악과 유사립법을 강행하고 미제와 공동-경합하면서 이라크 침략전쟁에 참전할 것을 기도하고 있고 또 북조선 (중국) 침략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고이즈미의 북조선 방문이 이런 전쟁을 위한 역사적 돌진의 시작이다. 미일제가 북조선에 대단한 중압을 가하고 있다. 유사립법이 북조선 침략전쟁을 위한 입법이다. 일제가 북조선 스탈린주의의 반인민적인 납치 사건을 빌미로 배외주의 선동을 벌이면서 600만여명에 이르는 강제연행 등 모든 책임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일조 공동성명에서 김정일이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책임에 대한 배상도 보상도 내팽개쳤다. 세계혁명과 민족해방 투쟁에 적대하는 스탈린주의=김정일 체제는 조선 인민의 역사적 권리를 팔아 넘기는 배신을 저지렀다.

조선인민·재일조선인민과 연대해서 미일제의 북조선 침략전쟁을 내란으로 바꿔 진정한 남북통일을 이룩하자.

투쟁하는 팔레스타인·이라크·중동인민과 연대해서 이라크 침략전쟁을 국제적 내란으로 바꾸자.

10.26 전미(全美) 반전 투쟁에 연대해서 10.21 국제 반전의 날 투쟁에 나서자.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으로 쫓기하자!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중핵파)

도쿄도 에도가와구 마쓰에 1-12-7

전진사

(東京都 江戸川区 松江 1-12-7 前進社)

<http://www.zenshin.org/>

